

무산김 영향 어획량 급증 ... 연 1800t 생산 전국 25%

전국 1등 지역 명품

②장흥 낙지

낙지하면 무안 빨낙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낙지 생산 1번지는 장흥이다.

장흥에서는 득량만을 중심으로 600여 어가에서 지난해 연간 1800여t의 낙지를 잡아 전국 생산량(7100t)의 25%, 전남 생산량(4500t)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잡히는 낙지의 60%가량이 전남산이고 이 가운데 40%가 장흥산일 정도로 단일 지자체로는 장흥이 최대 산지다. 낙지잡이로 인한 장흥군의 연간 소득도 25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장흥이 전국 최대 낙지 산지가 된 것은 2008년이다. 2008년 8월 어민들이 김양식에 염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득량만 일대의 생태계가 살아난 것이 낙지 생산량 증가에 기폭제가 됐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에 달라붙는 이물질질을 제거하기 위해 염산을 사용했지만 일명 무기산 재배로 전환하면서 바다 밑 부식된 갯벌이 살아나 어류나 연체동물의 먹이인

머리 작고 발 통통해 쫄깃 쫄깃

최대산지 불구 브랜드 파워 미흡

키조개·돼지고기 묶어 삼합 구상

규조류 서식이 풍부해졌다.

장흥군이 치어 남획 금지를 위해 낙지잡이 어구로 쓰인 통발 그물코를 22mm이하로 제한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6만개의 불법 통발어구를 폐기한 것도 장흥 낙지의 전국 1위 등극에 일조를 했다.

득량만 연안 바다 수온이 최근 몇 년사이 3~4도 낮아 1년생인 낙지 생존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흥산 낙지는 머리가 작고 발이 통통하며 길어 씹을수록 쫄깃쫄깃한 것이 특징이다.

갯벌색으로 윤기가 흘러 맛있게 도 하지만 수족관으로 유통시 폐사율이 낮고 활력이 좋아 타 지역산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산지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가 약한 것은 해결

해야 할 과제다.

장흥 낙지는 무안산에 비해 3배 가량 생산량이 많지만 '목구비 빨낙지'로 통칭되는 '무안 빨낙지'의 브랜드 파워에 비하면 지명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수산물 위관장을 장흥낙지의 유통 거점으로 삼아 낙지산업을 브랜드화 하고 토요시장과 서울 가락동과 노량진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장흥낙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하면 한우·키조개·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삼합이 유명하듯 낙지는 전국 1위 품목임에도 아직까지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며 "최근 삼합을 묶어 '장



장흥산 낙지와 한우를 넣어 만든 낙지전골. 장흥 낙지는 머리가 작고 발이 통통하면서도 긴것이 특징이다.

흥한우삼합'이란 브랜드를 만든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충무취재본부장



소나무와 아기염소

9월 보성군 웅치면 용반리 응축마을 소나무숲길을 염소 가족이 한가로이 노닐고 있다. 소나무숲 뒤편에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마을 숲'으로 선정된 서어나무 군락지와 철쭉으로 유명한 일림산이 있다. (보성군 제공)

여수시, '희망하우스 1호' 현판식

지역 업체들, 소외 계층 주거환경개선 앞장

여수시에 후원자들의 손길로 소외된 계층의 열악한 주택을 개조해 주는 1호 희망하우스가 탄생했다.

여수시는 9일 오전 화양면 상전마을에서 김충석 시장과 후원처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하우스 1호 현판식'을 가졌다.

희망하우스 1호 주인공은 화양면

육거리 박모씨. 박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와 노모, 중고생 자녀를 둔 가장이지만 질병과 습관적 음주로 안정된 직업이 없는데다 농사일도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여고생이지만 장려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씨의 딸은 보일러가 고장 나 온기도 없는 방에서 생활하면

서도 "그저 씻을 수 있는 샤워장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지역 업체들이 지난달부터 후원을 자처하고 나섰다.

여천NCC는 지붕철거와 교체, 한화케미칼·한화여수공장·한화에너지는 내부 철거와 마루, 화장실 공사를 맡았다.

신호전기에서는 전기를, Lee 가구 갤러리에서는 장롱, 책상 등 가구를 후원했고 대립산업에서는 가전

과 주방용품을 지원하는 등 박씨의 주거환경개선에 모두 2600만원 상당이 집수됐다.

여수시도 박씨가 음주 치료와 안정된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족관계를 강화하도록 돕고 자녀 교육과 취업도 연계할 계획이다.

박씨는 "바람이 불 때마다 지붕이 내려앉을까, 집이 무너질까 걱정했었다. 특정한 새집이 생기게 믿기지 않는다"며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남도, 유기농 기술지원단 가동

229개 읍면에 1개씩 1145명 구성

전남도는 영농철을 맞아 유기농업 조기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으로 유기농 기술지원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기술지원단은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작물별 전남도지사, 유기농 명인, 선도농가 등 도내 229개 읍면에 1개씩 모두 114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달부터 10월까지 각 마을과 친환경 농업단지를 돌며 생육단계별 포장관리, 병해충 방제, 미생물 자재조 활용요령 등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해결한다.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는 유기농 기술지원 콜센터를 설치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유기농업 조기 정착과 무제초제 농업 실현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6만ha와 일반단지 4만ha 모두 10만ha에 새끼우렁이를 공급했다.

이 면적은 전체 제초면적, 17만 1000ha의 58% 규모다.

또 전남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센터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작물과 영농 시기에 맞춰 공

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친환경 영농을 추진해왔다.

무농약과 유기농 등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은 8만2309ha로 전국 대비 16만4467ha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학교급식 등 친환경 유기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농 확산이 시급하다"며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지도는 물론 행정적·재정적으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수기자 bungy@kwangju.co.kr

도로변 봄나물 먹지 마세요

썩·민들레 등 4건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전남도가 도로변과 야산 등에 자생하는 봄나물 56건을 채취, 중금속 오염도 조사를 한 결과 도로변에 자생하는 봄나물 4건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로변과 도심 하천 등 오염 우려지역과 야산, 들녘 등 비오염 지역으로 구분해 썩과 냉이 등 비교적 채취가 쉬운 봄나물 9종 56건을 채취했다.

납과 카드뮴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납, 담양, 화순, 강진 등 4곳 도로변에서 채취한 민들레와 썩, 들나

물 등 시료 4건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최대 9배 초과했다.

담양 월산면 한 도로에서 채취한 썩은 카드뮴이 기준치(0.2mg/kg)를 9배 초과한 1.9mg/kg 검출됐다.

야산이나 들녘 등 비오염지역에서 자생하는 봄나물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에 자생하는 봄나물 채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서 찾그릇 난장전

17일~19일 아트홀서

단국대 도예연구소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진아트홀 전시장과 야외 공연장에서 '강진 찾그릇 난장전'을 개최한다.

이번 난장에서는 강진의 도예가들을 비롯해 전국의 도예가 130여명이 직접 제작한 3000여점의 찾그릇을 전시한다.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는 전국의 도예가들이 힘을 합쳐 도자의 발전을 꾀하고 도예시장을 넓혀 가려는 취지에서 청자의 고장인 강진에서 전시회를 기획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관**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